

한우자조금, 한우 홍보대사에

배우 지진희 씨 위촉



부드러움과 카리스마가 공존하는 배우 지진희가 2016년 한우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근수)는 2016년 한우 홍보대사로 배우 지진희를 발탁하고 4월 2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소재의 '한국의 집' 중정 안마당에서 한우홍보대사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번 위촉식에서 한우자조금은 지진희에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브랜드로서 한우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 설 것을 당부하며 위촉패와 한우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신예배우 김보령과 영어강사 겸 방송인 리사켈리, 고려대 구로병원 김한겸 교수를 함께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배우 지진희는 한우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에 대해 "평소에도 고기를 즐겨먹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한우를 가장 좋아한다"며, "부위별로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우리 한우의 매력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데 힘쓰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또한 한우 홍보대사로 위촉된 리사켈리는 "앞으로 외국인들에게 한우의 우수성은 물론 한우의 한류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고려

대 구로병원 김한겸 교수는 "한우고기의 영양학적 가치와 우수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이근수 위원장은 "지진희 씨가 다수의 드라마에서 보여준 부드러우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이미지가 믿고 먹을 수 있는 한우의 이미지와 잘 맞아 한우홍보대사로 선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한우의 대표 얼굴로서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이브뉴스 곽동신 기자 [2016. 04. 26]

한돈자조금, 파주출판단지서

한돈 요리시식과

다양한 이벤트 진행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는 5월 한 달 간,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다. 첫 번째로 5월 5일 어린이날 파주출판단지에서 열린 '어린이 책잔치 2016'을 찾아 다양한 한돈 요리 시식과 이벤트를 진행했다.

한돈자조금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들과 가족들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돼지 한돈을 즐기고 이를 통해 뜻깊은 시간을 갖는 계기를 제공하고, 한돈의 우수한 맛과 영양을 알려 한돈 농가에 보탬을

주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국내 대표 육가공업체 도드람한돈과 웰팜포크가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날 한돈자조금은 찾아가는 한돈 무빙 레스토랑을 통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비큐 500인분을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한돈 레시피북을 제공해 언제 어디서나 한돈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손쉬운 요리법도 소개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한돈 캐릭터 한도니가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한도니는 500인분의 바베큐를 직접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함께 사진 촬영을 하는 등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다. 여기에 한돈자조금은 경품 이벤트를 진행해 다양한 기념품도 제공했다.

한돈자조금 이병규 위원장은 “한돈자조금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무빙레스토랑 뿐만 아니라 캠핑 페스티벌, 한돈과 함께하는 가족 나들이 등 온 가족이 우리돼지 한돈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한돈자조금은 우리돼지 한돈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라이브뉴스 광동신 기자 [2016. 05. 03]

우유자조금관리위-농협중앙회

‘2016년 우유의 날 행사

‘국내산 치즈페스티벌’ 개최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와 농협중앙회(김태환 축산경제대표이사)는 지난 5월 28일과 29일 2일간 서울 한강 뚝섬유원지 수변무대에서 ‘2016년 우유의 날 행사 & 국내산 치즈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6월 1일 세계 우유의 날을 기념하여 우리 낙농업의 부산물인 국산우유와 치즈의 홍보를 통해 국산우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산 치즈의 저변을 확대함으로써 최근 위기에 빠진 낙농업의 발전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전국의 낙농가 및 유업체 등 범낙농계가 모두 참여하여 소비자들과 함께 어우러진 대규모 행사로서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빙그레, 롯데푸드, 푸르밀, 건국유업, 동원F&B 등에서도 다양한 신제품을 소개하고 소비자들에게 시식기회를 제공했다.

1박 2일간, 폭 5m, 높이5m의 대형텐트 60동의 규모로 진행된 본 행사는 크게 ‘우유의 날 행사 프로그램’ 및 ‘도심 속 목장나들이’와 ‘국내산 치즈페스티벌’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관람객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우유의 날 행사 프로그램에서는 △우유과학 매직 공연 △하얀미소 버스킹 △페이스 페인팅 △캐리커처 △하얀웃음 하얀 해시태그 △하얀미소 드로잉 △젖소 로데오 △우유의 날 전시관 등의 체험·전시프로그램과 더불어 시원한 우유빙수도 무료로 제공했다.

5월 28일(토) 오후 6시부터는 2시간 동안 이번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경기방송(FM 99.9)의 라디오 공개방송도 함께 진행되어 여러 가수들의 축하공

연도 펼쳐졌다.

‘치즈페스티벌’에서는 국산 치즈의 우수성을 홍보함과 동시에 여러 치즈요리를 소개하고, 직접 시식하고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도심 속 목장나들이’에서는 도심 속에서 아이들을 위해 손쉽게 목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송아지 우유 주기와 육성우 건초주기, 엄마젖소 직접 젓짜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또한 웨이킹 밀크보틀, 하얀우유 컵케이크 만들기, 하얀우유 요리교실, △하얀 우유 가족사진관 △K-MILK를 잡아라(경흥회사) △하얀 乳(유)목민 씬터 △하얀 우유 캠페인 △하얀 乳(유)목민 카페 △하얀 乳(유)목민 극장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국산 우유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스탬프 투어를 통해 경품도 제공했다.

육계협회, 농식품부 · 서울시 공동

중국 관광객 8천명 대상

한강공원에서 ‘삼계탕파티’



“삼계탕을 처음 먹어보는데, 중국의 계탕과 맛이 상당히 흡사해 생소하지 않고 맛이 있어 중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삼계탕을 구매해 가족과 함께 먹고 싶습니다.”

중국 광저우에서 온 장징 씨의 말이다. 지난 5월 6

일과 10일에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삼계탕 만찬 파티가 개최됐다. 이번 삼계탕 만찬 파티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서울특별시, 한국육계협회와 중국 삼계탕 수출작업장 등록 5개 수출업체(하림, 참프레, 사조화인코리아, 농협목우촌, 교동식품)등이 대중국 삼계탕 수출을 앞둔 가운데 포상 휴가차 한국을 방문한 중국한 중마이과기발전유한공사(이하 중마이그룹) 임직원 8000명에게 국내산 삼계탕을 미리 선보여 중국 수출 진입 및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삼계탕 만찬 파티는 5월 6일과 10일 두 번에 걸쳐 각각 4000명, 총 8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만찬 식탁에는 5개 수출업체가 제조한 수출용 즉석 삼계탕이 제공됐다. 이번 행사를 앞두고 리다빙 중마이그룹 총재는 “중마이그룹 임직원들은 삼계탕 만찬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삼계탕이 중국에 수출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중마이그룹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내 첫 중국 수출 개시를 목표로 삼계탕 수출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합의, 포장 표시 심의 등 남은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은 “중국에 국내산 삼계탕 수출 요청을 10년 동안 해왔는데,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에서 검역조건에 합의해 6월에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해졌다”라며 “중국인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국내산 삼계탕을 맛볼 수 있도록 정부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2016. 05. 13]